시 론

여수 섬박람회가 남긴 과제…지역관광의 재설계



정 성 문
더채움 대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폐막을 사흘 앞둔 여수세계섬박람회장을 찾았다. 막바지 관람객으로 북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현장은 한산해 보였다. 하루의 인상으로 박람회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여수를 만들어낸 과거의 박람회를 생각하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같은 여수에서 14년의 간격을 두고 열린 두 국제행사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과거의 개최 경험은 이번 섬박람회를 준비한 사람과 조직의 역량에 얼마나 투영되었나.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빅오와 국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국 각지에서 사람을 불러들였다. 800만명을 목표로 개최됐던 엑스포는 약 820만명을 불러들였고, 이러한 성과는 '여수 밤바다'라는 브랜드로 이어져 연간 1천3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여수를 만들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국민소통 백서』에 따르면 여수세계엑스포의 성공 요인으로 조직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협업, 관람 대상별 맞춤형 홍보, 교육과 연계한 콘텐츠의 발굴과 안내가 꼽혔다.

올해 섬박람회는 10월29일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넘어섰다. 주·부행사장을 합친 수치이지만 목표 관람객 300만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개최 기간과 규모가 다른 두 행사를 숫자만으로 견줄 수는 없다. 그러나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날로그식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하는 설치물과 한국인 스태프가 현지인을 대신해 자리를 지키는 국제관, 섬과 해양이 아닌 대륙의 풍광을 담은 '쿵푸 팬더' 영화 상영 등 부실한 콘텐츠는 아쉬움을 넘어 흥행 실패를 자초한 구조적 한계였다. 직접 사업비가 248억 원에서 723억 원으로 늘었지만 전문성과 책임을 지속시킬 체계도 그만큼 준비됐는지, 역량을 갖췄는지 묻고 싶다.

두 행사의 비교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과거의 규모를 재현하자는 것이 아니다. 경험을 조직의 역량으로 남기고, 현장의 반응에 따라 계획을 고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물어야 한다. 행사가 끝날 때마다 조직이 흩어지고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 2012년 세계엑스포의 성공을 발판 삼아 쇠락하던 남해안의 항구도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한 여수. 전국의 부러움을 샀던 그 저력이 14년 뒤인 2026년 세계섬박람회에서는 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까. 그 답은 과거의 성공 경험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한다.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도시라는 자부심은 여수의 DNA에 남았지만 정작 그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경험과 조직의 역량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한 것이다.

여수의 사례가 지역관광에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한 번의 성공을 다음의 역량으로 이어가고, 달라지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행정이 익숙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가 따라가는 구조에서는 새로운 요구를 읽기 어렵다. 주민과 현장 전문가의 경험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방문객의 비판을 개선의 계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산을 늘려도 관광의 질은 달라지기 어렵다.

중앙정부 공모와 국비 확보에 매달리는 관행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다. 지역에 필요한 일보다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을 찾고, 운영할 사람을 준비하기보다 정해진 기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앞선다. 지역관광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만드는 일과 함께 관광객의 반응을 읽고 경험을 축적하며 다음 기획에 반영하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 소통과 학습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주민과 사업자는 현장의 변화를 전하고, 행정은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며, 전문가는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공개적으로 살피며 고쳐가는 경험이 쌓여야 한다. 신뢰는 협약서에 서명하거나 회의를 몇 차례 여는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

관광재단과 같은 중간 조직은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행정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주민과 관광사업자, 전문가, 행정이 함께 의제를 정하고 실행을 점검하는 거버넌스의 구심점으로 작동해야 한다. 관광객의 반응과 사업 경험을 기록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지식이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은 사람의 관계와 경험이 계속 연결되는 구조에서 나온다.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지역관광이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협력의 시스템이다.

취재수첩

의대 논란 서남권 정치권 자성론 확산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전남 의대 문제와 관련해 서남권 지역 정치권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주민들의 자성론이 확산하고 있다. 의대 심사 결과 발표 후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가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았느냐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비판은 삭발이나 단식, 집회 등 1차원적인 항의 행동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역의 명운이 걸린 중대 현안인 만큼 정치인들이 구태의연한 퍼포먼스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심사 결과 발표 직후 관련 기관이나 원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부터 마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쏟아진다.

정치권이 앞장서 시민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훨씬 더 강력한 지역적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과 같은 릴레이 항의는 자칫 향후 불거질 책임론을 회피하거나 그 무게를 덜기 위한 면피용 수단으로 비칠 우려마저 있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결여된 단발성 시위는 지속가능한 지역 역량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응 방향을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시민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비로소 실질적인 결집력이 발휘될 수 있다.

전남 의대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항의나 소모적인 지역 간 경쟁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 지역 의료의 미래와 주민의 생명권,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격언처럼 현재 서남권에 절실한 것은 개별 정치적 퍼포먼스를 넘어선 연대다.

누가 더 강하고 자극적인 목소리를 내느냐보다, 누가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대안을 빚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이 먼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전남 의대 문제 해결을 향한 진정한 출발점이다.

가을철 '교통사고' 주의해야

독자투고

수확철 논밭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귀갓길은 바빠지기 마련이다. 조급한 마음에 서둘다 보면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가을철에는 낙엽, 젖은 노면, 빠른 일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이륜차 운전 시에는 젖은 낙엽이나 비가 그친 후의 젖은 노면에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해가 빨리지는 시기에는 야간 시야 확보가 중요하며,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고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야 한다.

셋째, 단체 이동 차량이 늘어나는 10월은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농기계 사용 시에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감속하고, 도로 주행 시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보행자는 어두운 길에서 밝은 색이나 반사 소재를 착용하여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신속히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평범한 일상을 습격하는 불안, 이상동기범죄

치열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지루하면서 힘든 날들로 기억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지나가는 하루는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에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을 남기고 있다.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뚜렷하거나 통상적인 범죄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범죄로 현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뿐만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러한 범죄가 도시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AI기반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한 이상행동 탐지로 위험 상황이 발생 시 관제센터에 자동 알림서비스가 연계돼 사고가 조기에 발견되고 경찰 상황실 전파 및 신속한 경찰 출동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험을 먼저 살피고, 국민의 평범한 하루를 위해 언제나 달려갈 것이다.

〈노승찬 해남경찰서 화원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물가 상승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거나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경제지표인 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그 만큼 가중됐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남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늘었다. 전월 상승률 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광주가 2.6% 전남이 2.9%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광주 2.5%, 전남은 2.8% 각각 상승했다.

특히 공업제품 가격 상승은 심상치 않다. 전년 동월 대비 경유 가격이 19.9%, 휘발유 11.9% 각각 상승했고, 휴대전화기 가격도 10.8% 올랐다. 유류비는 화물 운송과 대중교통, 유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서비스 물가 상승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항공료가 20.7% 올랐고, 보험서비스료와 자동차수리비도 각각 13.4%, 6.9% 상승했다. 외래진료비도 2% 올랐다.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1.6% 내렸다. 국산 쇠고기와 고등어 가격은 상승한 반면 사과, 상추, 귤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가 내림세를 보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지만,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코 이를 물가 안정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농민에게는 적정한 판매가격이 보장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필요하다.

공공요금 상승도 우려된다. 전년 동월 대비 전기·가스·수도와 상수도료는 0.3%, 3.7% 각각 올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크기 때문이다. 전남광주시와 정치권은 소비자 물가 안정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지켜주는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 삭감 안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관련사업들이 대폭 삭감됐다. 도박중독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도박중독 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 예산안이 감소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또한 인력·예산·지역별 접근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 등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지역사회 기반 도박치유·재활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1억원 줄어든 84억3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치유·재활 사업 활성화와 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예방·치유 전문인력 양성, 예방사업 운영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줄줄이 축소된 사실은 정책 수요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도박중독은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돈을 좋아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는 점이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잃은 돈을 되찾으려 다시 도박을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심각한 중독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 중독은 학업과 대인관계,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예방 중심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예산확보는 필수다. 예방홍보와 치유재활은 별개의 사업이 아닌 연속된 과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 격차도 해결해야 한다.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광주와 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상담·예방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원거리 주민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12월 여수에 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면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접근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도박중독은 발생 후 수습 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예산과 인력,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도박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그래픽 뉴스

10월 외환보유액 4천432억달러로 늘어…국제 순위 9위로 ↑

지난달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만에 늘어났다.

외환보유액 나라별 순위는 두 단계 상승해 9위를 기록했다. 금값 하락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431억6천만달러로, 9월 말보다 26억달러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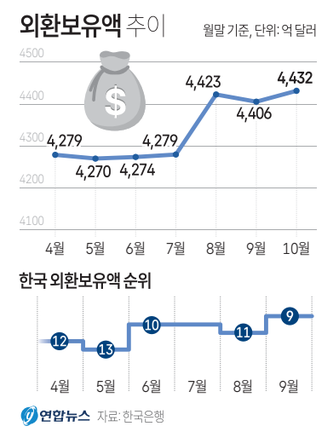
외환보유액은 8월 143억3천만달러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가 9월에는 17억2천만달러 감소했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증가하며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예치금(362억7천만달러)이 63억2천만달러 늘었다.

반면 유가증권은 3천824만3천만달러로 35억9천만달러 줄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8월 말 기준 통계부터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비공개로 하면서 이번에도 보도자료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천405억6천만달러) 세계 9위 수준으로, 8월(11위)과 비교해 2계단 상승했다. 외환보유액 순위가 9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瀕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